

Bernd Halbherr 베른트 할프헤르

Phantoms: Spirituality and Stories

Hanmi Gallery Seoul

전시기간: 2016 5월5일 - 28일 | 리셉션: 수요일 5월4일, 7:00pm



Tokyo life Nr.7, 2015. Archive Print on Textile. 80 x 76 cm. Edition of 5.

한미갤러리 서울은 독일 작가 베른트 할프헤르(Bernd Halbherr)의 작업들을 Phantoms 라는 이름의 전시로 선보입니다. 한미 갤러리는 근대와 현대 미술 전시를 통하여 특별히 동아시아와 유럽사이의 자라나고 있는 문화적 교류 관계에 기여하는데 많은 힘을 쓰고 있으며 이러한 교류의 확장에 기여한 작가의 전시할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영성과 이야기들’에 대한 탐구로써, 할프헤르는 디지털과 유형(有形)의 방법들을 이용하여 이미지들을 재구성시켜 새로운 시각적 차원을 만들어 낸다. 그는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한계의 경계선을 허물며, 그의 작품을 보는 이들로 하여금 그들의 주변의 여러가지 것들과 교감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방식에 대해 재조명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할프헤르의 창의적 과정의 한 줄기는 이미지의 변형이다. 이것을 그는 다양한 방법으로 해냄으로써 여러종류의 독창성 있는 작업들을 만들어 내었다. 이 중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작업으로는 할프헤르 작품세계의 상징이 된 구(globe) 형태로 제작된 사진조각들이 있다. 원하는 대상을 담고 싶은 모든 각도에서 담아낼 수 있게 해주는 이 구형태의 파노라마 조각들을 그는 학생이었을 때 부터 만들어 왔다. 그의 구형태 조각은 그 전체가 하나의 파노라마 이미지로 덮여 있다. 구체와 파노라마 사진은 둘다 공간의 전체성에 대한 표현으로, 그는 작품들을 통하여 이 두가지 요소들을 결합시켜 카메라 렌즈가 가진 화각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관객들은 할프헤르의 구형 조각들 주위를 따라 걷게 될 때, 작가가 품었던 비전의 확장선상에 있는 그 구에 담긴 이미지의 주변 모습들안에 각자 저마다의 상상을 통하여 펼쳐보게 될 것이다. 그의 작업에 영향을 줄 만큼 신기술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 표명한 바 있는 할프헤르는 직접 3D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Tokyo Life> 컬렉션을 만들어내기까지 하였다.

이 작업 시리즈에서 할프헤르는 웹에서 찾은 이미지들을 그것의 원형의 일말의 모습만 남긴채 변형시켜 버린다. 이미지의 상세한 부분들은 지워지지만, 그것의 본질은 남아있게 된다. 관객은 마치 사라져가는 기억의 조각들을 끼어 맞추듯이 그

이미지가 보여주는 바가 무엇인지를 각자의 생각과 경험을 통하여 알아내야 한다. 이와 같이, 할프헤르는〈 Short Stories〉 시리즈 작업에서 비디오를 분해시켜 그 본래의 형태와는 전혀 다른 하나의 평면적 이미지로 보여준다. 서로 반대되는 최면적 이미지들 속에서 관객은 본래 스틸샷들의 의미와 잔재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

할프헤르는 1964년에 아인슈타인의 고향이기도 한 독일 울름에서 태어났다. 그는 뉴렘버그에서 미술 공부를 한 뒤, 뒤셀도르프 대학에서 순수예술 학사, 1997년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 뒤로 독일국립 장학금을 (DAAD) 받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활동하였다. 그후 그는 한국 미디어 시티 비엔날레 2000에 참가하며 한국예술계에 데뷔하였다. 그는 그 이후로 한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그의 작품은 독일의 에렌호프(Ehrenhof) 미술관, 뒤셀도르프(Duesseldorf) 미술관, 카를수르에의 Sammlung Hermann 콜렉션, 그리고 뒤셀도르프의 Sammlung Stoschek 에서 소장하고 있다. 또한 그의 작품들은 서울, 베를린, 뒤셀도르프, 울름, 아헨, 뮌헨글라트바흐, 뮌헨, 슈투트가르트 등지의 개인 콜렉터들에게 소장되어있다.



Seokpacheon Hanok, 2016. Photographic Sculpture, 30 cm diameter. Edition of 5.

About Hanmi Gallery

한미 갤러리는 동양과 서양의 시각예술 및 문화의 교류를 추구하고, 국제적 현대미술 전시를 기획하는 공간입니다. 영국 런던을 통해 한국의 현대 미술을 국제 미술세계에 소개하고 한국 미술의 입지를 세계적으로 넓히고자 2010년 런던에 개관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서울 강남구에 한미 갤러리 두 번째 갤러리를 개관하여 해외주요작가 및 다양한 장르의 젊은 작가를 한국에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서 런던과 서울 두거점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유럽과 한국을 연결짓고 양 지역의 새로운 플랫폼을 마련하고 장려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습니다. 전문적인 큐레이터의 안목과 정보를 바탕으로 국내외의 역량있는 신진 작가 및 최고의 작가들의 작품의 실험적인 전시 기획과 지속적으로 작품을 소개하여 동서양의 시각문화 담론을 활성화하는데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미갤러리

서울 강남구 신사동 608-12

T. 070 8680 3107

C. 010 3669 8897

seoul@hanmigallery.co.uk

info@hanmigallery.co.uk

www.hanmigallery.co.uk

대중교통

지하철 : 3호선 압구정역 3번출구(도보 5분)

